제 1 교시

# 국어 영역 (A형)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2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보기>와 같이 토론의 내용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사회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입장별로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며,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성:** ○○일보에 따르면 유럽의 일부 국가는 지역 선거에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율은 18세~35세의 참여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 참여자 중 83%는 이를 통해 전보다 자존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도 민주 시민이므로 선거권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반대:** 그 유럽 국가 중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었다가 현재는 보류 중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년은 아직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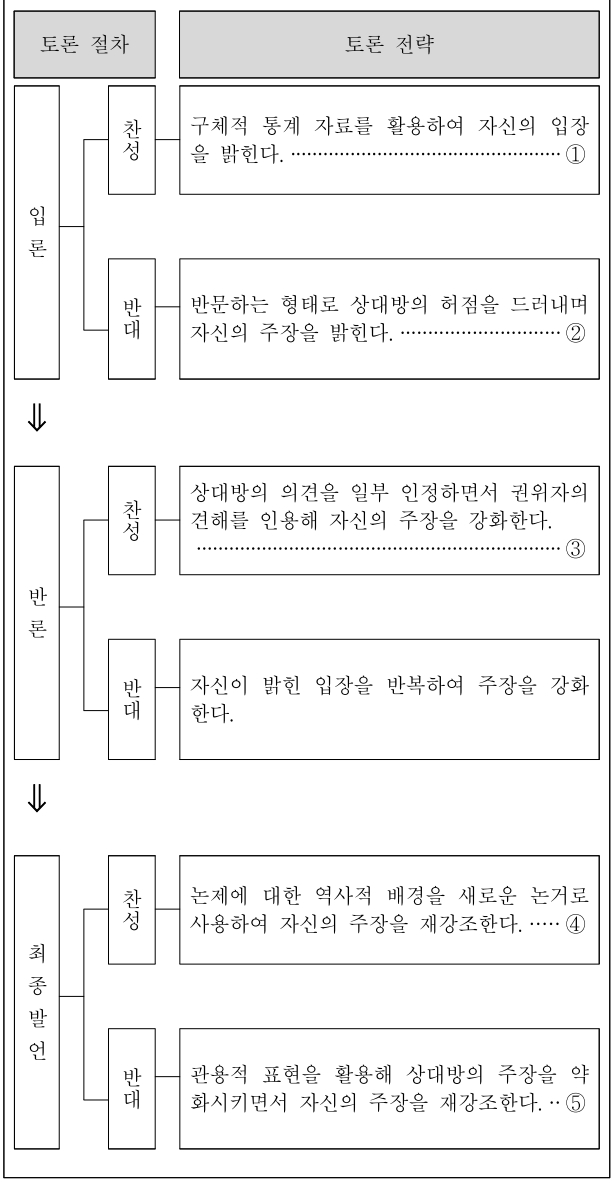
**찬성:** 미성숙한 사람이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피아제와 콜버그는 '인간은 청소년기에 이미 성인 수준의 인지능력에 도달한다.'고 했으니,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반대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청소년들은 정치적 관심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청소년들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치보다는 연예인이나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성:** 선거 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9개의 나라 중 82%가 선거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적 변화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 정립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우리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인들조차 올바른 선거 문화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 16세의 청소년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시킨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 기>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 영상물 시청 후 논술문을 쓰기 위한 개요 작성 |
|---|---|

| 과제 수행 기록 | 나의 논술문 개요 작성에 대해서 |
|---|---|

오늘 작문시간의 과제는 '영상물을 시청한 후 논술문을 쓰기 위한 개요 작성'이었다. 영상물은 사회적 책임 경영의 모범적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은 경제적 수익성 외에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경영 방식이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외국의 모범적 사례를 우리나라 기업의 미흡한 사례와 대비하여 설명해 주셨다. 나는 이것을 시청한 후 주제문을 정한 다음 논술문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글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태를 조사한 후,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글쓰기 계획

주제문: 사회적 책임 경영 …… ㉠

[논술문을 위한 개요]
서론: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필요성 …… ㉡

본론
1.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태
2.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가. 단기적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경영 의식 …… ㉢
   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제도 미흡
3. 분석한 원인별 해결 방안 …… ㉣
   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 ㉤

결론: 논의를 종합하여 주제를 강조함

**2.**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여러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제를 다각화한다.
② 글감을 찾기 위해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다.
③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④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토의 활동을 실시한다.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3.** ㉠～㉤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로 구체화한다.
② ㉡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외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③ ㉢에는 오염물질 정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유발 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④ ㉣에는 '2-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구축'을 추가한다.
⑤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2-가'를 고려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방식의 제안'으로 수정한다.

**[4～5] 다음은 '금개구리 보호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인 금개구리를 아십니까? 퉁방울같이 생긴 눈 주위에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하여 금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구리와 달리 평생 물속에서만 살고 움직임도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금개구리를 지금은 휴전선 인근 민간인 통제 구역이나 일부 청정 지역의 습지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서식지가 오염되어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개구리 보존을 위해 공공기관의 대책 수립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금개구리의 생존 문제는 인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개구리는 환경 지표 생물로, 오염된 환경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멸종 위기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개구리는 관광 자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보전해야 합니다.

**4.**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붙게'로 고쳐야겠어.
②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금개구리는'을 추가해야겠어.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의 끝 부분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④ ㉣: 앞뒤 문단의 연결을 고려하여 '혹은'으로 바꿔야겠어.
⑤ ㉤: 글의 흐름으로 보아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게 좋겠어.

**5.** 고쳐 쓴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개구리 보호'를 촉구하는 광고 문구를 제작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내용: 공존의 가치를 강조할 것
○ 표현: 설의법과 의인법을 사용할 것

① 금개구리가 사는 곳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금개구리의 여린 생명을 지키는 손길입니다.
②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우는 금개구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욕심만 채우기보다 자연과 이웃이 되는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③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연못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금개구리에게 그곳은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뿐인 고향이고 집일지도 몰라요.
④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금개구리가 살고 있을지 몰라요.
여름휴가 때 보았던 논에도 금개구리가 숨 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⑤ 금개구리를 보호해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는 없을까요?

**6.**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잘못 표기된 나라 이름을 수정하였을 때, 수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

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라 이름 | 수정 전 | → | 수정 후 | 수정 근거 |
|---|---|---|---|---|
| 고려[고려] | **g**o l y e o | → | **G**o **r**y e o | ㉠, ㉣ ····· ① |
| 발해[발해] | **P**a **r**h a e | → | **B**a l h a e | ㉠, ㉡ ····· ② |
| 백제[백째] | **P**a e **g**j e | → | **B**a e **k**j e | ㉠ ····· ③ |
| 신라[실라] | S i **l r** a | → | S i **ll** a | ㉡ ····· ④ |
| 옥저[옥쩌] | **o** k **jj** e o | → | **O** k **j** e o | ㉢, ㉣ ····· ⑤ |

**7.** <보기>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용언은 특정한 종류의 체언만을 요구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 때의 용언과 체언 사이의 관계를 선택 제약이라 한다.

ㄱ. 철수는 (아버지를/ *강아지를/ *권력을) 존경한다.
ㄴ. (강아지가/ 아버지가/ *권력이) 철수와 논다.
ㄷ. 그녀는 매일 (우유를/ *나무를) 마신다.
ㄹ. 수진이는 살며시 (눈을/ *입을) 감는다.
ㅁ. 선생님이 (아이들을/ *옷을) 가르친다.

'*'는 의미가 어색한 표현임

① ㄱ을 보면 '존경하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는군.
② ㄴ을 보면 '놀다'는 짐승을 가리키는 명사만을 주어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군.
③ ㄷ을 보면 '마시다'는 액체를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는 성질이 있군.
④ ㄹ을 보면 '감다'는 특정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군.
⑤ ㅁ을 보면 '가르치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군.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A]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나)** 눈이 내리네
바람 맞서 울고 섰는 나무들이
눈에 덮이네
**그대와 걷던 산길**
북한산 기슭의 그 외딴 숫막*
함께 앉던 그 자리에도
눈이 내려 쌓이네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와도
**굳은 맹세** 변함 없건만
괴로워라 지금 **여기 없는 그대**를 위해
나는 술잔을 채울 뿐
눈이 오는 날은
**울고 싶어라**
그러나 기약한 **그날**은 갑자기
눈처럼 오는 법이 없기에
**빛나는 아침**을 위해
나는 **녹슨 칼날**을 닦으리
눈보다 차갑고
눈보다 순결한 마음으로
깊이 깊이 **사랑을 새겨두리**

- 정희성, 「눈 덮인 산길에서」 -

*숫막: 주막(酒幕)의 옛말

**(다)**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데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김광섭, 「생(生)의 감각(感覺)」 -

**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② 시적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③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화자의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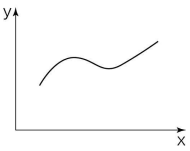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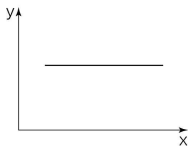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의 대비를 통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제시하여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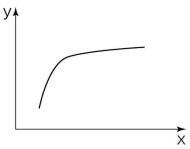
**10.**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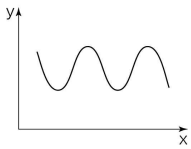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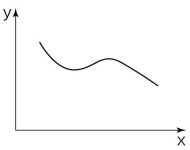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리는 '설렘의 정서'를 느낀다. '설렘의 정서'는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희망을 갖게 될 때 상승하며,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실망감을 느낄 때 하강한다.

① 


② 


③ 


④ 


⑤ 


**x**축: 시간
**y**축: 설렘의 정서

① '그대와 걷던 산길'은 산악회를 조직하여 지인들과 함께 산행을 다니던 시인의 개인적 체험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굳은 맹세'는 시인이 원하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던 지난날의 다짐을 의미하겠군.
③ '울고 싶어라'는 시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절로, '여기 없는 그대'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함축되어 있군.
④ '녹슨 칼날'은 시인의 현재 모습을 상징하는 구절로, '녹슨'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인 자신의 상태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반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군.
⑤ '사랑을 새겨 두리'는 시인이 꿈꾸는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불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시인의 내적 의지를 표출한 구절이겠군.

**1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시인의 개인적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이다. 당시 시인은 지인들과 산악회를 조직하여 등산을 다니곤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악 회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느라고 산행에 자주 불참했던 것에 비해 시인만이 꾸준히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인은 "다 바삐 돌아가는데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며 탄식하였다고 한다. 결국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함과 더불어,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현실과 대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연은 각 행을 동일한 종결어미로 끝맺음함으로써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2연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시의 운율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③ 2연과 3연은 서술어의 시제를 달리하여 시적 상황의 선후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④ 2연과 4연은 시적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4연 2~3행은 3연 1행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3연과 4연이 인과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86년부터 2년에 걸쳐 조사된 백제 시대의 공산성에서는 원형의 인공 연못이 발굴되었다. 일반적으로 연못을 조성하는 방법은 지면을 깊게 파고 그 가장자리에 자연석으로 경계면을 쌓아 만드는 것이다. 발굴될 당시에는 '500년에 백제의 동성왕이 공산성 안에 못을 파 놀이터로 ⓐ삼았으며'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공산성의 원형 연못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 탄성파 굴절법으로 연못 지반의 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산성 원형 연못의 조성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탄성파 굴절법은 인공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궁궐터나 절터 등 문화재를 발굴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탐사를 위해서는 먼저 해머 등으로 인공 지진파를 발생시켜야 한다. 인공 지진파는 지표와 지하를 이동하여 지표에 설치된 여러 수진기에 기록이 되는데, 이때 지표를 따라 수진기에 도달하는 직접파와 지하의 매질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도착하는 굴절파로 나뉜다. 직접파는 진원지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 수진기에 도착한다. 이와 달리 굴절파는 지하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구성하고 있는 매질의 성격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강도가 강한 매질을 통과한 굴절파일수록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직접파가 기준이 되어 굴절파들의 도착 속도를 비교하면 지하를 구성하고 있는 지반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탐사한 결과인 표준 암반 기준에 의하면 굴절파의 속도가 200～700m/s는 다져지지 않은 풍화토층, 700～1200m/s는 인공적인 힘에 의해 다져진 인공 다짐층, 1200～1900m/s의 경우는 보통암인 기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산성의 원형 연못 주변을 탐사한 결과, 공산성의 지반은 대략적으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첫 번째 층은 굴절파가 약 300m/s 속도를 가진 2m 두께의 풍화토층, 중간층은 약 900m/s 속도를 보인 4m 두께의 인공 다짐층이며 최하부층은 2500m/s의 속도와 약 7～10m의 범위를 보여주는 기반암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자연히 쌓인 풍화토를 제외한다면 공산성 연못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기초 지반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공산성 원형 연못은 지면을 파서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와 같이 기반암 위에 인공적인 다짐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연못을 조성하는 쌓아 올림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매질: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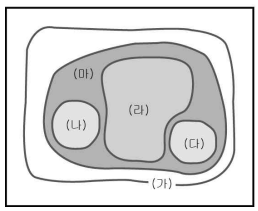
**1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공 지진파는 직접파와 굴절파로 나뉜다.
② 역사적 자료를 통해 유적지 조성 방식을 추측할 수 있다.
③ 탄성파 굴절법으로 액체와 기체의 광물도 탐사할 수 있다.
④ 탄성파 굴절법의 굴절파는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⑤ 탄성파 굴절법 탐사를 위해서는 인공 지진을 만드는 장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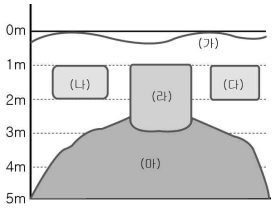
**14.** 위 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역 탐사 결과 - 탄성파 굴절법 활용>




<평면도>




<단면도>

| | | |
|---|---|---|
| 굴절파 속도 | (가) | 약 400m/s |
| | (나) | 약 800m/s |
| | (다) | 약 900m/s |
| | (라) | 약 1000m/s |
| | (마) | 약 1700m/s |

① (가)는 자연적으로 쌓여진 풍화토층이다.
② (가)보다 (나)에서의 굴절파 속도가 빠른 것은 매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③ (다)는 (나)보다 단단하게 다져졌을 것이다.
④ (라)는 (다)보다 더 두꺼운 다짐층이다.
⑤ (마)는 공산성 연못의 기반암보다 매질의 강도가 더 강하다.

**15.** ㉠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물은 100℃에서 끓지만, 0℃에는 얼게 된다.
② 밤 하늘에 달무리가 뜨면 다음날 비가 온다.
③ 자동차보다 자전거는 느리고, 비행기는 빠르다.
④ 축구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각 45분씩 경기를 한다.
⑤ 장기판의 장기알들은 각각 움직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16.**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그녀는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삼았다.
② 할머니는 베를 짜기 위해 모시를 삼았다.
③ 철수는 진공청소기를 장난감 삼아 놀았다.
④ 할아버지는 윗목에서 짚신을 삼고 있었다.
⑤ 그는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기로 하였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사에서 욕망은 보통 부정적인 것이며 무언가의 결핍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그들은 욕망이 결핍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또한 욕망은 무의식적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이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산하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했다.

욕망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무의식이므로 사회는 이를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는 늘 타인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고 순응시키는 쪽으로만 전략을 수립해 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여기에 주목했고 이러한 욕망의 통제 방식을 '코드화'라고 부르며 사회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부족을 이루며 생활했던 원시 사회부터 욕망은 통제되기 시작한다. 코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셈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다양한 욕망의 흐름을 각각에 어울리는 코드로 통제하는 방식이며 통제의 중심이라 할 만한 게 없는 시기이다. 욕망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시기는 고대 사회이다. 여기서는 왕이 국가를 지배하며 이를 중심으로 욕망이 통제된다. 이것은 하나의 강력한 코드 아래에 다른 모든 코드들을 종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초코드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초코드화 사회는 왕권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까지 욕망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현대 사회는 왕이 사라지고 코드화의 중심이 없어짐으로써 다양한 욕망이 자유롭게 충족될 수 있는 탈코드화 사회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는 고대 사회의 왕의 역할을 자본이 대신하며 이를 중심으로 욕망이 통제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는 오히려 어느 사회보다도 강력한 초코드화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이전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듯 보이나 실상은 자본에 의해 욕망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의 코드화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였고 욕망이 갖고 있는 능동성과 생성의 에너지가 상실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코드화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노마디즘'이다. 노마디즘은 주어진 코드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을 찾아나서는 유목의 도(道)를 말하며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태도를 뜻한다.

**17.**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이해를 도모하자.
ㄴ.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ㄷ.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ㄹ. 특정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전개하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8.** '욕망'에 대한 견해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욕망에는 특정한 대상도 범위도 없다.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욕망은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여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인간의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의 원인은 욕망에 있으므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④ 인간의 욕망은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인간이 스스로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정서이다.
⑤ 욕망은 인간에 내재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성숙한 인간이라면 이성의 힘으로 욕망을 적절히 억압해야 한다.

**1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욕망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② 사회 체제는 욕망의 통제를 근간으로 유지되어 왔다.
③ 코드화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를 통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현대 사회는 자본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코드화를 이루었다.
⑤ 노마디즘적 사유와 행동을 지향하면 원시 사회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왕이 지배하던 시기의 사회에서는 나라 안의 모든 토지가 왕의 것이라는 왕토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왕은 관리들의 녹봉을 돈이 아니라 땅으로 주었는데,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라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을 관리들에게 주었다. 땅을 갖고 싶었음에도 관리들은 수조권을 갖는 것에 만족해야 했고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경작권을 얻어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① 경작권은 관리들이 백성들을 코드화한 방식이다.
② 신분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욕망의 범위가 달랐다.
③ 왕토사상은 토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초코드화한 방식이다.
④ 관리들은 땅을 가질 수 없으므로 욕망이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왕에게 수조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관리들의 땅에 대한 소유욕이 해소되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狂奔疊石吼重巒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人語難分咫尺間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常恐是非聲到耳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故敎流水盡籠山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나)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아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슨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시상 사람 무수한데 구테 너난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다시 자심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 불청 원망 소래 온 때 마다 듣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검치두덕: 욕심 언덕. 잠의 욕심이 언덕처럼 쌓였다는 뜻
*자심(滋甚)하뇨: 점점 더 심해지느냐?
*허도(虛度)이: 헛되이 보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언하당(言下當):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의 뜻임
*불어 내어: 풀어 내어. 풀어서
*무삼 요수: 무슨 요망한 수

**(다)** 나는 물을 보고 있다.

물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흙 속에서 스며 나와 흙 위에 흐르는 물, 그러나 흙물이 아니요 정(淨)한 유리 그릇에 담긴 듯 진공 같은 물, 그런 물이 풀잎을 스치며 조각돌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푸른 하늘 아래에 즐겁게 노래하며 흘러가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하면, 이의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 이에게 있는 것이다. 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와 사귈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을 보면 즐겁기도 하다. 이에겐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여울을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 이의 즐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되 덤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어 나중 날 넘쳐 흘러가는 유유무언(悠悠無言)*의 낙관(樂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 넣으면 독 속에서, 땅 속 좁은 철관에 몰아넣으면 몰아넣는 그대로 능인자안(能忍自安)*한다.

ⓐ물은 성(聖)스럽다. 무심히 흐르되 어별(魚鼈)이 이의 품에 살고, 논, 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이로 인해 윤택하다.

물의 덕을 힘입지 않은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자(智者) 노자(老子)는 일찍이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다.

- 이태준, 「물」 -

*유유무언(悠悠無言): 유유한 가운데 말이 없음
*능인자안(能忍自安): 능히 참아 내어 스스로 편안함
*상선약수(上善若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임

**2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도치를 통해 대상이 가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물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다)는 단정적 어조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2.**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잠노래'는 농사일이나 집안일 등 바쁜 낮의 일과를 보내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남은 집안일을 해야 했던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불리어지던 민요이다. 위 '잠노래'의 화자는 의인화를 통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찾아오는 '잠'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고 해학적인 태도로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쫓아내고 해야 할 일을 마치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① '잠'을 청자로 설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군.
② '잠 못 들어 한하는데'를 통해 '잠'을 쫓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군.
③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를 통해 화자의 애환을 알 수 있군.
④ '바늘'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노래가 여인들 사이에서 불리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라는 구절에서 해학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과 ㉡ 모두 화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② ㉠과 ㉡ 모두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③ ㉠과 ㉡ 모두 화자의 이상이 현실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문제 상황에 대해 ㉠은 거부의 태도를, ㉡은 수용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⑤ 효용적 측면으로 볼 때 ㉠은 다양한 기능을, ㉡은 단일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24.** ⓐ와 관련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
② 어려움 속에서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
③ 욕심 없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④ 자연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⑤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종종 미래의 행동을 결정할 때 매몰비용, 즉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에 집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추가적인 비용과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몰비용을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공짜였다면 가지 않았을 농구 경기를 이미 지불한 티켓 값이 아까워서 경기 당일 눈보라를 무릅쓰고 경기장에 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번 투자한 시간, 돈, 또는 노력에 대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매몰비용효과'라 한다.

이러한 매몰비용효과는 '심적 회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심적 회계 이론에서는 소비자들이 거래를 할 때, 지불한 비용과 얻게 될 이익 사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비용과 이익의 심리적 연결인 '커플링'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때 비용과 이익이 심리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거래커플링'이라 하고, 반대로 비용과 이익이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를 '디커플링'이라 한다. 비용과 이익이 심리적으로 명백하게 연결된 거래커플링의 경우, 소비자의 매몰비용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남아있는 이익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매몰비용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즉, 위의 농구 경기 사례처럼 하나의 비용에 하나의 이익이 연결될 때는 거래커플링이 야기되어 눈보라를 무릅쓰고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는 것이다.

반면 하나의 비용이 여러 이익과 연결될 때, 예를 들어 서로 기능이나 가격이 다른 상품을 묶어 파는 경우에는 총비용을 여러 개의 이익에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 소비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디커플링이 야기되어,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한 주의력이 낮아지게 되므로 매몰비용효과는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불이나 정액 요금 같이, 지불한 시점과 소비 시점간의 거리가 먼 경우 디커플링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25.** 위 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 원고를 만들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발표 원고 ***

①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비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저는 심적 회계 이론의 커플링 개념을 이용하여 이번 추석 특집 방송에선 '냄비 2종'과 '프라이팬 3종'을 묶어 판매하여 '반품률은 낮게! 판매율은 높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③ 묶어 파는 경우 고객은 이미 지불한 비용과 이익 사이의 심리적 연결을 분명히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④ 이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거래 커플링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⑤ 따라서 매몰비용에 대한 주의력을 그 어느 때보다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품하는 소비자는 적게, 판매율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26.** ㉠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 중 데이터 사용량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90% 이상이지만, 같은 요금제를 계속 이용한다.
② 새로 산 구두가 신을 때마다 발이 아파 걷기가 힘들지만 비싸게 지불한 신발 값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고 다닌다.
③ 같은 월급을 받는 독신자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남는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갑을 여는 것에 과감한 경우가 많아 충동구매가 잦은 편이다.
④ 10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5천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A 백화점 추석맞이 이벤트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
⑤ 5㎞ 떨어져 있는 가게에서 11만 원의 옷이 10만 원일 경우에는 굳이 가지 않지만, 2만 원의 계산기가 1만 원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 간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
또 추우면 오고 더우면 가기도 한다.
언제나 패를 짜서 먹이를 찾아갔다가 떼를 지어서 돌아온다.
이것은 후조*의 생리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후조도 있다.

지난 가을—포도 위에 가로수 잎이 깔릴 무렵이니까 아마 시월 중순경인가 보다.

민우(民雨)가 을지로 6가로 해서 동대문 밖 숙소로 돌아오니까 웬 구두닦이 아이놈이 불쑥 앞을 막아서면서 양복 소매를 잡아 흔든다.

[중략 줄거리] 구칠은 민우를 만나 아버지와 계모의 구박 등 부산을 떠나게 된 사연을 털어 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구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준 민우의 호의에 보답한다며 영화 구경을 시켜 주고 민우가 퇴근할 때마다 매번 길목에서 기다린다. 크리스마스 전날 구칠은 거절하지만 민우는 구칠이에게 옷을 사라고 돈을 준다. 그러던 어느 날 구칠은 민우에게 신발을 사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뒤 구칠이는 민우 신을 닦을 때마다 걱정을 했다.

㉠"자식이 어제도 만났는데 곧 가지고 온다면서……."

하고 혼자 투덜거렸다.

오월 초순 어느 토요일, 이날 민우는 여느 때보다 좀 일찍 돌아왔다.

의자랑 연모통을 그대로 둔 채 구칠이는 보이지 않았다.

변소에라도 갔나 하고 민우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옆 뒷골목 안이 왁자하다.

각다귀들의 싸움이거니 하고 민우는 담배를 피우면서 한동안 기다렸으나 구칠이는 쉬이 돌아오지 않는다.

싸움 구경이라도 하나 보다 하고 민우는 골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선다.

[A] 구두닦이 아이놈이랑 너댓 둘러선 가운데 뒤꼴로 봐서도 말쑥하게 차린 청년 하나가 누군지를 마구 쥐어박고 있다.
청년은 고무신을 끌고 한 손에 구두 한 켤레를 들었다.
맞고 있는 아이가 혹 구칠이가 아닌가 해서 다가가자니까,
"선생님 가시오. 오지 마이소, 아무 일도 아임더."
코피로 해서 얼굴이 엉망이 된 구칠이다.

"아니, 구칠이 이게……."

구칠이는 연신 피를 뱉고 입 언저리를 문지르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절망적인 소리를 지른다.

㉡"선생님은 가이소, 아무 일도 아니오. 가시오, 선생님."

그러자 청년이 험상궂게 민우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누구요?"

민우는 얼른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아 한동안 머뭇거리다,

"아니, 누구라기보다도 이게 대체……."

이 틈을 타서 구칠이는 그만 골목 막바지로 사생결단 내달아 버렸다.

구칠이가 골목 막바지에서 옆으로 꺾일 때에야 비로소 청년은 당황하면서,

"요런……."

그리고는 뒤를 쫓는다.

민우는 속으로,

'어떻게 됐건 우선은 구칠이가 잡히지나 않았으면.'

하고 모여 선 아이들에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나 ㉢이놈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비실비실 달아나 버린다.

민우는 되돌아 나오면서도 가 볼까 어쩔까 하고 망설이는데 한 아이가 와서 구칠이 연장을 거둔다.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맡아 뒀다가 주겠다는 것이다.

민우는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부러 신을 닦이면서,

"얘, 그 뭣 땜에 그러니?"

이놈은 민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요 앞에 식당에서 신을 훔치다 들켰어요!"

"아니 구칠이가?"

"또 한 아이하고 둘이서 그랬는데 한 아이는 달아나고 구칠이만 잡혔어요!"

㉣민우는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아슬아슬해진다.

눈을 감고 한동안 진정을 한다.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하니 괘씸한 생각과 측은한 마음이 한꺼번에 겹쳐 든다.

'이놈을 만나면 호되게 혼을 내 놔야지, 괘씸한 놈.'

그러나 이놈을 만나면 아무래도 울음부터 먼저 터지고야 말 것만 같다.

"하, 고놈 자식 잡기만 했으면 대강이를 그저……."

하고 아깟 번 그 청년이 씨근거리면서 돌아왔다.

[B] "어떻게 됐어요?"
"놓쳤어요!"
민우는 우선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잘됐다, 했다.
"아, 이거 봐요, 사서 아직 일주일도 채 못 신은 신인데……."
그리고는 고무신과 바꿔 신고는 전찻길을 건너가 버린다.

그런 다음 날부터 구칠이는 보이지 않는다.

나흘째 되던 날 민우는 기동차 정거장 밖 콩나물 할머니 천막을 찾아갔다.

그런 할머니가 있기는 한데 시장에 나갔는지 문이 걸려 있었다.

㉤민우는 아침 저녁 출퇴근 때 구칠이가 신을 닦던 그 앞에 오면 버릇처럼 발이 멎는다.

열흘 가까이 해서 구칠이가 펴던 자리에는 딴 아이가 앉았다.

민우는 신발을 내맡기고,

"전에 여기서 신을 닦던 구칠이란 아이 모르냐?"

"알아요, 일선 지구 미군 부대로 갔어요!"

"혼자?"

"아니오, 여럿이 패를 짜서 가는 데 끼어서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구두 닦는 아이들이 패를 짜서 미군 부대를 찾아 돈벌이를 간다고 한다.

언제 오느냐니까 가을에 온다고 한다.

팔월도 지났다. 지루한 여름이었다.

구월도 저물었다. 더디 오는 가을이었다.

[C] 포도 위에 가로수 잎이 깔리기 시작하는 어느 날, 민우는 문득 하늘을 쳐다본다.
어디선가 기러기 한 떼가 ∧ 꼴로 정연히 열을 지어 날아오고 있다.
인제는 구칠이도 오려나—하니 민우는 몹시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 오영수, 「후조」 –

*후조: 철을 따라 살 곳을 바꾸는 새

2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③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각박한 시대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따뜻한 인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자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간 유형과는 다른 예외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② '언제나 패를 짜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③ '떼를 지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
④ '이것은 후조의 생리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는 인간의 숙명을 보여준다.
⑤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후조'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인정이나 의리와 같은 본연의 마음을 드러내는 인간 유형이다.

29. 위 글의 내용을 영상물로 만든다고 할 때, [A]~[C]의 구성 의도에 맞는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 구성 의도 | 연출 계획 |
|---|---|---|
| [A] |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 | 가쁜 호흡이 섞인 말투로 연기한다. ····· ① |
| | | 코피의 붉은 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얼굴을 분장한다. ····· ② |
| [B] |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얼굴 표정을 오버랩한다. ····· ③ |
| | | 인물의 내적 독백을 내레이션 처리한다. |
| [C] | 작품의 분위기를 전달 | 카메라 시선을 가로수 잎의 근경에서 기러기 떼의 원경으로 이동한다. ····· ④ |
| | | 슬픈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 ····· ⑤ |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초조해 하고 있다.
② ㉡: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켜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③ ㉢: 내막을 숨긴 채 눈치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자신을 이용한 구칠이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⑤ ㉤: 소식이 없는 구칠이에 대해 궁금해 하며 걱정하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국가들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거두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일로 민심을 잃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평한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의 크기를 구하고, 그 값을 국가가 정한 기준값으로 나눈 후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동양의 고대 수학책인 『구장산술』은 이러한 토지의 측량과 배분 등에 관한 ㉠수학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측정해야 할 토지의 모양이 다양했기 때문에 『구장산술』에서는 그 땅의 모양을 직사각형, 이등변삼각형, 사다리꼴, 원 모양 등으로 간주하여 땅 넓이의 근삿값을 얻는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활 모양의 '호시전(弧矢田)'은 그 모양과 가장 유사한 사다리꼴로 간주하고 계산하였다. 호시전의 아랫변을 '현', 그 아랫변 양 끝을 이은 곡선을 '호', 현의 중심과 호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을 '시'라 하였고, 윗변을 시의 길이와 같게 잡은 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 '(아랫변 + 윗변) × 높이 ÷ 2'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의 넓이 측정이라는 실제 문제 상황을 평면도형의 계산과 관련지었다. 이렇게 근삿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고대 동양 수학의 실용적 특성이다.

이러한 실용적 특성은 원 모양의 토지인 '원전(圓田)'을 정육각형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육각형의 둘레는 정육각형 한 변에 6을 곱하여 구하고, 정육각형 넓이는 정육각형 안에 있는 6개의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은 원주율을 3으로 잡고 계산한 원의 넓이의 값과 같다. 당시 그보다 훨씬 상세한 원주율을 알고 있었지만 계산상의 편리함 때문에 원주율을 3으로 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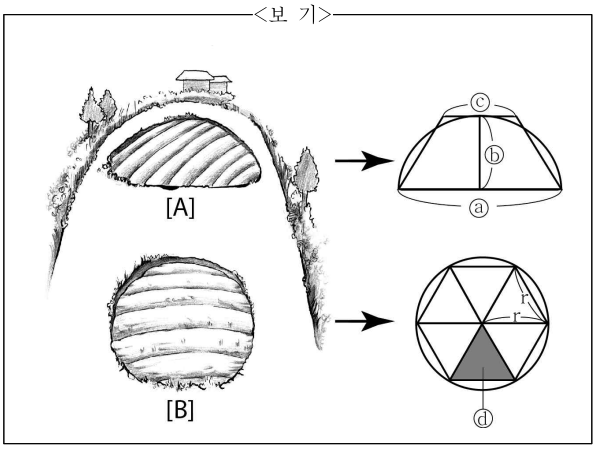
이렇게 측량한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수 계산식이 필요했다. 『구장산술』의 분수 계산식 중에서 약분 계산법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책에서는 '약분'을 2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분모와 분자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원래 수를 최대공약수로 나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분자와 분모 중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교대로 계속하여 빼서 같아지는 수를 구하라.'로 되어 있다. 같아진 작은 수는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뜻하는데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법은 그리스의 유클리드 호제법과 비슷하다.

**3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 측량과 배분이 중요했다.
②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해 뺄셈을 계산식에 이용하였다.
③ 고대 동양에서는 원주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했다.
④ 동양의 계산법 중 서양의 계산법과 유사한 것이 존재했다.
⑤ 다양한 토지 모양을 그것과 비슷한 평면 도형으로 간주하였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① [A]의 ⓐ의 길이는 ⓑ와 ⓒ의 합과 같다고 했겠군.
② [A]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는 ⓑ의 길이와 같다고 했겠군.
③ [A]의 넓이는 (ⓐ+ⓒ)×ⓑ÷2로 구했겠군.
④ [B]의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넓이의 값은, ⓓ의 6배로 보았겠군.
⑤ [B]의 둘레는 한 변이 r인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고 보았겠군.

**33.** ㉠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요에 의해 발생한다.
② 과학적 의사소통에 필요하다.
③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
④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
⑤ 다른 학문의 발전에 기초가 된다.

**34.** ㉡과 유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이 행사 제품은 1인당 3개로 구입을 제한한다.
② 30% 할인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서 옷을 구입한다.
③ 도시가스의 사용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한다.
④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포인트가 많이 쌓인다.
⑤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누진세가 부과된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日出猿生員(일출원생원)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描過鼠盡死(묘과서진사) 고양이가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黃昏蚊檐至(황혼문첨지)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夜出蚤席射(야출조석사)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
- 김병연, 「원생원(元生員)」-

위 노래는 김삿갓이 북도 지방의 어느 집에 갔다가 그 곳에 있던 마을 유지들을 놀리며 지은 시이다. 이는 '동음이의(同音異義)'라는 우리말의 특징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각 구절 끝에 그 지역의 유지인 원 생원(元生員), 서 진사(徐進士), 문 첨지(文僉知), 조 석사(趙碩士)를 같은 소리인 '원숭이, 쥐, 모기, 벼룩'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마땅치 않은 상대들을 직설적이지 않은 어조로 비난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조선시대 시문(詩文)의 창작에서는 주제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표와 기의의 복합적인 결합 관계에 의한 의미 분화 현상을 활용하였다. 이는 ㉠다의어와 동음어를 포괄한 개념인 '동음이의현상'으로 조선시대 시문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하나의 기표와 복수의 기의를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지봉유설』에 나타난 구절을 보자.

의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너게 되었다. 중류쯤 왔을 때 바람을 만나 배가 엎어지려 하자 의원은 돌아앉아서 '리중탕(理中湯)'을 연거푸 외고 있었다. 이윽고 바람이 자서 물을 무사히 건너자 여러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의원은 대답하기를, "대개 배가 아프면 리중탕을 쓰는 것이 구급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말로 배[腹]와 배[舟]가 같은 음인 까닭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모두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이 이야기는 동음이의현상이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 나타나는 한 예이다. '의원'은 어원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두 단어를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해 위험한 문제 상황에서 해학적 행동을 하여 주위에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에서 선인들의 뛰어난 언어 감각과 재치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자 가자'라는 민요에는 '가자 가자 감나무야/ 오자 오자 옷나무야/ 방구뽕뽕 뽕나무/ 바람솔솔 솔나무' 에서와 같은 유사한 청각 영상의 연상을 활용하여 이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동음이의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가 양식은 나물타령, 나무타령, 장타령, 각설이타령 등 전통동요를 중심으로 하는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유사한 청각 영상을 연관시켜 중의를 표현하는 동음이의현상은 "바다는 왜 바다일까요? 소리 나는 대로 '받아'를 발음하면 '바다'가 됩니다. 뭐든지 잘 받아주어서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현대에도 발화 상황에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 적절히 사용한다.

[A]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이나 어구에 동일한 청각 영상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낱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거나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경우로, 가령 '말ᄒᆞ기 죠타 ᄒᆞ고 놈의 말을 마롤 거시/ 놈의 말 내 ᄒᆞ면 놈도 내말 ᄒᆞᄂᆞᆫ 거시/ 말로셔 말이 만흐니 말 마롬이 죠해라'에서는 '말'이라는 기표를 반복하는 동음이의현상을 활용한 까닭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서도 언어 사용에 대단히 신중했던 당대 사회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35.** 위 글에 대한 효율적인 읽기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활동 | 내용 |
|---|---|
| 사전 조사 | 언어의 특징에 관한 배경 지식 및 전문 용어 조사 …… ① |
| 진술 방식 탐구 |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 …… ② |
| 내용 구조 분석 | 한시를 전반부에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 …… ③ |
|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④ |
| 논지 파악 | 조선 시대 시문에 나타난 동음이의현상의 효용성 …… ⑤ |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의적으로 현실을 비판할 수 있겠군.
② 어원적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겠군.
③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군.
④ 고금을 통해 활용되어 온 우리말의 특성이겠군.
⑤ 문학 작품에서 활용하면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37.** [A]의 사례를 추가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므로 물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됩니다.
② 달래 먹고 달려 가자/ 쉬영 먹고 쉬여 가자/ 찔레 먹고 찔러 가자.
③ 눈이 온다. 나무에겐 초록색 잎눈이…… 꽃에게는 분홍색 꽃눈이…….
④ 이제 저녁노을 너머로 해가 지네요.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면 이 해도 다 가게 되겠지요.
⑤ 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낫이 잘 들어 한 나절 만에 땔감을 한 지게 가득 들고 돌아왔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검무는 칼을 들고 춘다고 해서 '칼춤'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황창랑무(黃倡郞舞)'라고도 한다. 검무의 역사적 기록은 『동경잡기(東京雜記)』의 「풍속조(風俗條)」에 나타난다. 신라의 소년 황창랑은 나라를 위하여 백제 왕궁에 들어가 왕 앞에서 칼춤을 추다 왕을 죽이고 자신도 잡혀서 죽는다. 신라 사람들이 이러한 그의 충절을 추모하여, 그의 모습을 본뜬 가면을 만들어 쓰고 그가 추던 춤을 따라 춘 것에서 검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민간에서 시작된 검무는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로 이어지며, 궁중으로까지 전해진다. 이 때 가면이 사라지는 형식적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조선 시대 민간의 검무는 기생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으며, 재인들과 광대들의 판놀이로까지 이어졌다. 조선 후기에는 각 지방까지 전파되었는데, 진주검무와 통영검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궁중의 검무는 주로 궁중의 연회 행사 때에 추는 춤으로 전해졌으며, 후기에 정착된 순조 때의 형식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궁중에서 추어지던 검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립을 쓰고 전복을 입은 4명의 무희가 쌍을 이루어, 바닥에 놓여진 단검(短劍)을 어르는 동작부터 시작한다. 그 후 칼을 주우면서 춤이 이어지고, 화려한 춤사위로 검을 빠르게 돌리는 연풍대(筵風臺)로 마무리한다.

검무의 절정인 연풍대는 조선 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쌍검대무(雙劍對舞)]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속의 두 무용수를 통해 춤의 회전 동작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이 장면에는 오른쪽에선 무희의 자세에서 시작해 왼쪽 무희의 자세로 회전하는 동작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무희들이 쌍을 이루어 좌우로 이동하면서 원을 그리며 팽이처럼 빙빙 도는 동작을 연풍대라 한다. 이 명칭은 ㉠대자리를 걷어 내는 바람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비롯한 것이다.

오늘날의 검무는 검술의 정밀한 무예 동작보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춤 형태로만 남아 있다. 칼을 쓰는 살벌함은 사라졌지만, 민첩하면서도 유연한 동작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검무는 신라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지는 고유한 문화이자 예술미가 살아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 유산이다.

**38.**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라 황창랑의 의기와 춤**
- 검무의 유래와 발생을 중심으로

② **역사 속에 흐르는 검빛·춤빛**
- 검무의 변천과 구성을 중심으로

③ **무예 동작과 아름다움의 조화**
- 연풍대의 의미를 중심으로

④ **무희의 칼끝에서 펼쳐지는 바람**
- 검무의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⑤ **검과 춤의 혼합, 우리의 문화 유산**
- 쌍검대무의 감상을 중심으로

**39.** 위 글을 읽고 난 후, 검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무에 담긴 충절의 의미가 현재까지 강조되고 있겠군.
② 조선 시대에 와서 검무는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었겠군.
③ 춤을 추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상과 소도구가 필요하겠군.
④ 검무는 느린 동작에서 빠른 동작으로 춤사위가 이어지겠군.
⑤ 연풍대는 쌍을 이루어 추는 모습에서 회전의 화려함을 살펴볼 수 있겠군.

**40.**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처용무는 처용 가면을 쓰고 오색(五色) 의상을 입은 남성 무원이 노래를 부르며 추는 전형적인 의식 무용이다. 그 기원은 악을 퇴치하고 병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라의 처용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시대의 궁중 제의(祭儀)와 연례(宴禮)에서 계승·발전되었고,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위를 기원하는 주술성을 가진 춤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면과 노래 가사, 춤이 보존되고 있다.

① 처용무와 검무는 신라의 궁중에서 창작된 춤이다.
② 처용무와 검무는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③ 처용무와 검무는 가면을 착용한 형태로 현재까지 전승된다.
④ 검무와 달리 처용무는 주술적 기능을 가진 춤이다.
⑤ 처용무와 달리 검무는 무희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41.** ㉠과 같은 방법으로 명칭이 지어진 것은?

① 점박이 ② 개구리 ③ 설거지 ④ 지우개 ⑤ 풋내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몸을 변하여 선관이 되어 머리에 ㉠쌍봉금관을 쓰고 몸에 홍포를 입고 허리에 백옥대를 띠고 손에 옥홀을 쥐고 청의 동자 한 쌍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안개를 의지하여 바로 대궐 위에 이르러 공중에 머물러 섰으니, 이 때가 춘정월 초이틀이었다.

상이 문무백관의 진하를 받으시니, 문득 오색 채운이 만천하고 향풍이 코를 찌르더니, 공중에서 말하여 가로되,

"국왕은 옥황의 칙지를 받으라."

하거늘, 상이 놀라서 급히 백관을 거느리시고 전에 내려와 분향(焚香) 첨망(瞻望)하니 선관이 오운(五雲) 속에서 이르되,

[A] "이제 옥제 천하에 구차한 중 죽은 영혼을 위로하실 양으로 ㉡태화궁을 창건하실새, 인간 각 나라에 황금 들보 하나씩을 만들어 올리되, 길이가 오 척이요, 너비는 칠 척이니 춘삼월 망일에 올라가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매 하늘로 올라가거늘, 상이 신기히 여기시며 전에 오르사 문무를 모아 의논하실새 간의대부가 여쭈옵길,

"이제 팔도에 반포하여 금을 모아 천명을 받듦이 옳으리이다."

상이 옳게 여기사 팔도에 금을 모아 바치라 하고, 공인(工人)을 불러 일변 금을 불려 길이와 너비의 치수를 맞추어 지어 내니, 왕공경사의 집안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팔도의 금이 진(盡)하고 심지어 비녀에 올린 금까지 벗겨 올리니, 상이 기꺼워하사 삼일 재계하시고 그 날을 기다려 포진하고 등대*하였더니 진시쯤 하여 상운이 궐내에 자욱하고 향취 진동하며 오운 가운데 선관이 청의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구름에 싸였으니 그 형용이 극히 황홀하더라.

상이 백관을 거느리시고 부복하시니, 그 선관이 전지를 내려 가로되,

"왕이 힘을 다하여 천명을 순종하니 정성이 지극한지라, 나라가 우순풍조하고 국태민안하여 복조가 무량하리니 경들은 상전을 공경하여 덕을 닦고 지내라."

말을 마친 우치가 쌍동제학을 타고 내려와 요구에 ㉢황금 들보를 걸어 올려 채운에 싸여 남쪽 땅으로 행하니, 무지개가 하늘에 뻗치고 비바람 소리가 진동하며 오색 채운이 각각 동서로 흩어지거늘, 상과 제신이 무수히 사례하고 육궁 비빈이 땅에 엎디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더라.

이 때, 우치는 그 들보를 가져다가 이 나라 안에서는 처치하기가 어려운지라, 그 길로 구름을 의지하여 서공 지방으로 향하여 먼저 들보 절반을 베어 헤쳐 팔아 쌀 십만 석을 사고 다시 배를 마련하여 나눠 싣고 ㉣순풍을 타고 가져가 십만 빈호에 알맞게 갈라 주어 당장 굶어 죽는 어려움에서 건지고 이듬해의 농량과 종자로 쓰게 하니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만 손을 마주 잡고 하늘과 같은 큰 덕을 칭사할 뿐이요, 관장들도 또한 기가 막히고 어리둥절하여 어찌된 곡절인지를 몰라 하였다.

<중략>

상이 노하여,

"우치 모역함을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하였으니 빨리 잡아 오라."

하시니, 나졸이 수명하고 일시에 따라 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하에 꿇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수죄하사,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이거늘, 이제 또 역률에 들었으며 발병하니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고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도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기를,

"신의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나 금일 일은 억울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니,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아니시리라.

[B]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치 못하올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복원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네 무슨 능함이 있기에 이리 보채느뇨?"

"신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기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록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치 못하옵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까."

상이 생각하시기를,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으리라.'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고 곧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과 만장폭포 산상을 좇아 산 밖으로 흐르게 하고 시냇가에 버들을 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밑에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하매, 상이 묻기를,

"너는 방금 죽일 놈이라.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말하기를,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으로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주하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대경하여,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 하리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등대(等待): 미리 갖추고 기다림

**4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왕은 전우치를 죽이려는 의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②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의견을 왕에게 전달하고 있다.
③ 왕은 선관이 등장할 때마다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④ 전우치는 황금 들보를 왕에게 되팔아 백성들을 구제했다.
⑤ 왕은 비녀의 금까지 벗겨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43.** ㉠~㉤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전우치전에는 도술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사용되고 있다. 즉 주인공이 도술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4.** [A]와 [B]에 나타난 '전우치'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에는 득의양양한, [B]에는 자포자기한 심리가 드러난다.
② [A]는 권위에, [B]는 동정심에 기대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③ [A]에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B]에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태도가 느껴진다.
④ [A]와 [B]는 모두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45.** ⓐ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임금은 사라지는 전우치를 바라보면서 ( ㉮ )하고 있다.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② 경거망동(輕擧妄動)
③ 망연자실(茫然自失)
④ 오매불망(寤寐不忘)
⑤ 전전반측(輾轉反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